

제5대 경기도교육위원 당선 인터뷰 조 돈 창 경기도연천교육장

“항상 初心으로 교육현장과 함께!”

예체능교육 지역내 연계교육 추진

“학생·교사·학부모가 행복하고, 신바람 나고, 만족해하는 맞춤형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31일 제5대 경기도교육위원으로 당선된 조돈창(사진·61) 연천교육장은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에서 태어나 가산초등학교, 포천중학교, 포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교육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다.

포천출신으로 교육위원에 당선됨으로써 1.2대 이효종 교육위원에 이어 두 번째 교육위원이 탄생된 것이다.

조 교육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뺏지 달고 위세 부리기 위한 교육위원이 아니라 학교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교육정책이나 예산확보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는 교육위원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포천지역에서 사무실을 개설해 교육문제를 누구나 허심탄회하게 상담하고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교육 비전에 대해 조 교육장은 포천시가 인구 15만이 넘어서고 신도시로 부각함에 따라 여기에 걸맞은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포천시가 신청해 추진중인 영북종합고등학교를 자립형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또 현재 포천 관내 예체능 선수들의 학교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수 선수의 외부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안에서 연계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산초등학교와 일동초등학교 축구부는 중학교에 축구부가 없으며 경복중학교 사이클부 또한 고등학교에 사이클부가 없어 다른 지역에 있는 삼곡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농촌학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실제로 농촌지역 학생들중에는 쌀을 구할 수 없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장은 특히 교사들의 승진간담제 수제도를 개정해 포천지역에서는 집경지역과 농어촌지역 가산점을 두 개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우수교사의 자발적인 유입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촌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반대해 나갈 계획이며 교장 공모제 또한 무자격 교장 임용을 적극 반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또 관내 유아학교를 지역별로 설립하여 정상적인 조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교육은 시간을 보는 시계가 아닌 나침반을 보고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며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장은 또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교육에서도 항상 무관심의 대상이었다”며 “이것은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취임1년6개월이 지났지만 북부지역을 단 한차례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제2교육청에 인사권과 재정권도 부여해서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지역 교육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시스템은 오히려 경기북부지역 일선학교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장은 경기도육골교육연수원 연수부장, 경기도포천교육청 학무과장, 포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송우초등학교 교장, 경기도연천·포천교육청 장학사, 가평 운악, 청평 초등학교 교장, 가산, 포천, 신평분교, 창수초등학교 교사등을 역임했다.

수상실적으로는 근정포장, 모범공무원 포

상, 교육부장관상 수상, 포천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돈창 경기도연천교육장이 오는 9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경기도교육위원으로 내건 공약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쾌적하고 아늑한 교실환경 조성 지원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학습관 설치 지원 ▶교육안전구역(edu-safety zone) 구축추진 ▶웰빙급식시스템 구축 및 무상급식 지원확대 ▶단설유치원 설치 확대 노력

▶선생님이 신바람 나는 교실 ▶교원복지시설확대 ▶무자격교장임용 절대 반대 ▶특구역 부장교사 우대방안 강구 ▶농촌진거 교직원 사택 신축지원 확대 ▶접경지역, 농어촌지역 승진간담제 분리 추진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영어마을 적극 유치 추진 ▶소규모학교 통폐합 결사반대 ▶학교운영위원 선진지 해외연수 추진

▶통학버스 운영방법 개선 및 확대 추진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지역별 대학수학능력고사장 확대 설치 추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교 유치 추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립학교 이념구현(건학이념) 지원노력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 확대 노력 ▶사립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 지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신임 제9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 이금중

“노인위상과 노인복지 향상 위해 노력”

“젊은 사람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은 젊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 말은 지난달 26일 실시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금중(75세) 회장이 평소 생각하는 노인과 젊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지난달 26일 임시총회를 겸한 제9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 선거에서 이금중 당선자는 이동해 전임 회장과 맞대결을 펼쳤다.

2명 후보의 소견서 발표에 이어 실시된 선거에는 포천시지회 임원과 각 경로당 회장이 유권자로 참석한 가운데 총 유권자 289명 가운데 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결과 이금중 후보 160표, 이동해 후보 107표, 무효 1표로 이금중 회장이 53표차이로 이동해



경로당 수는 많지만 운영비 관리비는 턱없이 부족 노인 먼저 솔선수범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도해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금중 당선자가 이날 소견발표에서 노인회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모임인 바, 노인회는 물론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복지사업에 책정되는 예산의 증액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오락의 보급과 복지시설의 확충에 노력한다. 각 경로당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지원이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다한다. 등 4개항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금중 당선자는 1931년 강원도 정선 출신으로 강릉농고를 중퇴하고 6.25가 발발하자 軍에 입대해 57년 육군중사로 예편했다. 이후 이동면 예비군중대 소대장과 이동면 소방대 총무, 대한노인회 중앙회 근무, 왕방경로당 회장(현), 6.25참전동지회 포천시지회장(현)을 맡고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실시되어 노인회장에 당선된 최충규 前포천향교 전교의 노인회장출마자적 여부가 불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노인회장으로 당선된 이금중 당선자를 만나 노인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당선 소감은

이동해 前회장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노인회장이라는 자리는 감투라기 보다는 인들을 대신해서 노인위상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들과 의논해 노인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시장과 의원들과 의논해 노인정책을 수립하는데 노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노인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노인회장에 당선되고 나니가 중책을 맡았다는 생각이 든다. 노인들의 건강은 노인들의 노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포천시가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

또 노인들은 우리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은 노인들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노인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임기동안 중점활동 사항은

시의 협의회 비가 새거나 허물어진 경로당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에 건축된 경로당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건축된 경로당은 보수해야 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각 마을마다 경로당을 건축해 그 숫자는 많다. 그러나 노인 수에 비해 시 지원금은 미흡하다. 시에서 노인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직원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을 하고 나면 사용할 예산이 없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시에서 운영비나 관리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할 사항이 있다면

젊은이는 나이를 먹으면 노인되고, 노인이 죽으면 조상이 된다. 젊은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져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조상과 노인이 있었기에 현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젊은 사람은 노인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하고, 노인들은 젊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사회가 평온해 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도할 줄 알아야 한다.

하승원 기자 form66@paran.com

장애인의 효과적인 재활복지사업센터 경북대학 부설 포천재활복지연구소



●목적

지역내 노인 및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환경 조성

●기대효과

재학생의 실무능력 극대화, 취업기회 확대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장애인 문화 확산으로 경북대학 이미지 고양

●주요사업

지역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문제 상담 및 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가정, 학교, 사회를 잇는 재활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재활사업 운영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소 장 양 경 희(작업치료과 학과장)

연구원 임 수 정(작업치료과 조교)